

공중(公衆)과 시민의 주체형성

이명원*

I

시민의 정체성과 주체성, 그리고 책임성의 문제를 논하기 위해 필자는 공중(公衆)의 형성이 시민의 주체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그것이 현대에 와서 어떠한 정체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공중이란 대중이나 군중(群衆)과 같은 물리적·심리적 무리집단의 성격과는 대립되는 개념으로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과 SNS와 같은 미디어의 매개 또는 접속을 통해 여론 또는 공론장을 형성하여 정치적 세계에 주체로서 참여하는 '정신적 군중'을 의미한다. 이렇게 공적 세계에 참여하는 공중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이 시민이라 일컫는 근대적 주체의 특이성인데,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변형되고 진화함에 따라 공중의 성격 역시 변화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인간의 역사에서 공중의 출현이 본격화된 것은 인쇄술의 발명이라는 기술적 진보와 함께 구미에서의 시민혁명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출현한 신문의 영향이 압도적이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신문은 여론을 생산하고 조직화하면서 군중이나 대중으로 흩어져있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집단을 정치적으로 조직화하거나 대립시킨다. 대체로 유럽에서 출현한 신문들은 정치적 당파성을 매우 강력하게 드러내는 정파지의 속성을 띠고 있었거니와, 이러한 신문을 통해 공통의 정치의식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감정이입했던 독자들은 군중에서 공중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변환시키는 한편 여론의 형식으로 정치과정의

* 실천문화사

변혁을 촉진하는 주체가 된다.

생각해 보면, 한국적 시민혁명의 기원이라 할 수 있는 4.19혁명 역시 마산에서 김주열의 참혹한 죽음을 보도한 『동아일보』의 특종이 분산되었던 군중을 강력한 정치적 공중으로 연결시킨 데서 나타난 측면이 없지 않고, 오늘의 정치질서를 구축해낸 1987년 6월항쟁 역시 박종철의 고문치사의 진실을 보도한 언론과 이에 적극적으로 공명한 공중들의 정치적 참여에 힘입은 것임은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신문에 의한 여론형성과 군중에서 공중으로의 정체성의 전환이라는 변화야말로 근대적 시민주체의 형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최근 한국에도 번역된 가브리엘 타르드(1843-1904)의 『여론과 공중』은 ‘사건’이 신문에서 탄생하고 신문을 읽은 독자들이 ‘공중’으로 재탄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던 최초의 저작이었다고 볼 수 있다. 타르드가 이 책을 써내려갔을 당시 귀스타프 르봉의 『군중심리』는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매우 첨예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있었고, 그래서 가령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조차 「집단심리학」이라는 논문을 쓸 정도였다. 그러나 타르드는 르봉 식의 군중 개념에 동의할 수 없었다. 르봉은 광장에 물리적으로 군집되어 있는 군중들의 정서적 감염력과 충동성에 주목했지만, 타르드는 그런 군중들은 동물들의 무리와 다를 것이 없으며 현대적 군중들은 보다 높은 차원의 정신성을 갖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것은 육체의 물리적 접촉과 군중심리와 같은 정서의 집합적 감염이라는 낮은 단계를 뛰어넘어 분산되어 있는 군중들의 정신을,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접속 또는 네트워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타르드의 생각에 이렇게 정신적으로 접속되고 결합된 고도로 승화된 군중으로서의 공중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정체성의 공중(公衆)으로 보아야 하며, 이 공중들이야말로 공론장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절대권력의 해독제” “정부에 대한 유일한 제동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타르드는 동시에 공중 역시 군중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여러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먼저 여론과 함께 공론장을 구성하는 두 주요한 가치인 전통과 이성이 갈등관계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하면 ‘여론조작의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독자는 자신의 신문을 선택했고 신문도 그의 독자를 추려낸다.” 프랑스처럼 신문이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성격을 노골화한다면, 신문을 통해 매개된 공중 역시 다수의 힘으로 정파적이고 당파적인 의견을 여론의 형태로 표출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은 이성과 전통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에 더해 그렇다면 이른바 ‘의제설정’은 누가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시할 수 있다. 만일 영향력 있는 기자나 사주가 자신의 정파적 이데올로기를 공론의 형식을 통해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위장한다면, 그것은 롤랑 바르트가 일찍이 ‘신화’라고 명명했던 체계적으로 조작된 이데올로기에 동원되는 것에 다름 아니다.

II

시선을 오늘의 한국사회로 돌리면, 오늘의 언론 상황이 타르드가 목격했던 ‘신문의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오늘의 미디어 환경에서 인쇄-출판문화의 총아인 신문이 여전히 중요한 여론형성 기제이기는 하지만, 신문과 결합하는 방송뿐만 아니라, 인터넷 언론과 SNS가 여론과 공중의 형성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한국의 언론은 명시적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세력을 지지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실’과 ‘불편부당’의 가치를 모든 언론이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백한 정파성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아이러니다. 금번의 총선거 면에서도 확인되듯 여전히 한국의 여론시장에서 종이신문이 뽑어내는 공중 형성 기제는 막강하다. 더구나 이병박 정부 출범 이래로 노정된 갈등이 방송 3사의 파업으로 증폭된 오늘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실제로 방송의 여론형성 기능이 공정하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여론형성 구도는 올드 미디어에 속하는 종이신문이라는 한축과 인터넷 언론 및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대립구도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각각의 종이신문들 역시 인터넷판을 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대립은 허구적이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이번 총선거에서의 지지정당과 세대간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보면, 현대적 공중의 진화양태를 비교적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다.

한국의 신문시장은 이른바 보수지라 할 수 있는 『조선』 『중앙』 『동아』가 과점하고 있는 체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의 경우는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뉴스앤뉴스』 등의 선호도가 높다. 여기에 더해 최근 새로운 여론형성 기제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른바 팟 캐스트 방송의 경우 <나는 꼼수다>와 <이슈 털어주는 남자>와 같은 대체로 개혁적이거나 진보적이라고 일컬어지는 성향을 보여준다.

종이신문의 충성독자는 보수적인 여당지지층을 형성하는 50대 이상에서 많이 나타난다. 반면, 인터넷 언론과 팟 캐스트, SNS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세대는 20대에서 40대까지의 젊은 층이 많으며, 이들 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야당의 지지율이 높다. 이것은 종이신문은 보수독자 뉴 미디어는 진보독자의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강조되어야 할 것은 현대적 공중 형성의 경로가 미디어의 진화과정에 조응하면서, 미디어 리더러시(문해)의 세대론적 차별성의 차이와 적대를 갈수록 뚜렷하게 보여준다는 점에 있다.

인쇄출판문화의 발전이 근대적 공중의 출현이라는 정치적 충격을 가하면서 민주주의의 근대적 원형을 만들어 왔다고 한다면, 오늘의 디지털 미디어/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발전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공중들을 형성시키고 있다. 이 현대적 공중의 특성은 종래의 종이신문이 여론생산의 일방향성을 상대적으로 선호하고 촉진해 온 데 반해, 그것의 쌍방향성 뿐만 아니라 공중의 능동적 참여와 주체적인 여론생산을 더 선호한다는 점에 있다. 대체로 이 흐름은 2000년대에 활성화된 인터넷 문화의 확산과 궤를 같이하며 다음 아고라와 같은 디지털 공론장으로부터 SNS와 같은 초감각적 여론형성 방식으로 폭넓게 진화하고 있다.

물론 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역사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여론시장에 균열을 가하고 그것을 즉각적으로 변환시키는 것은 아니다. 동시에 여론형성의 주체이자 객체인 공중들이 오늘과 같은 다매체 환경에서 종이신문과 SNS로 분열되어 상호 배타적인 여론형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역시 분명해 보이는 것은 이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의 변화는 일정한 시점이 되면 역전불가능한 형태로 올드 미디어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러한 미디어를 통한 여론형성과 공중의 변화는 단순히 공중의 정체성의 변화를 촉진하는 데서 더 나아가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도 변혁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근대적 공론장의 기본형식은 여론을 통한 공중 형성을 통해 직업정치인들로 하여금 의회나 행정부 안에서 정치적 대의를 추구하고 강제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이것은 '이중의 대의 체제'라 할 수 있는데, 1) 먼저 신문이 상상적으로 조직화된 공중들의 여론을 '대의'하고, 2) 그렇게 대의된 여론을 각각의 정치세력이 대의제(代議制) 아래서 '대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의 혹은 대행, 그리고 공중들의 여론을 대행하는 재현(representation)의 정치과정 속에서, 일단 공중은 시민적 주체성을 승인받지만 승인받은 주체성이 즉각 정치과정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우리는 공중을 여론에 의해 매개된 '정신적 군중'이라 말한 바 있거니와, 여론의 형태로 그들의 정치적 지향성이 표출되고 나면, 실제 정치형식은 직업정치인들의 세계로 이월되고, 공중은 군중의 본래적 자리로 퇴각하여 또 다른 여론형성의 기회를 기다릴 뿐이다.

그러나 디지털환경의 급변과 여론형성의 쌍방향성에서 더 나아가 SNS와 같은 형식의 정보의 직접생산과 공중으로의 확산이 기술적으로 용이하게 확산되는 변화 속에서는, '대의'나 '대행'에 기반한 여론형성 과정과 대의제 정치질서가 근본적인 변화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성적 숙고의 대상으로 격하되고 더 나아가서는 미디어의 매개나 정치가의 대행을 거부하는 공중들의 직접행동으로 연결될 조건이 무르익게 된다. 특히 다양한 정치세력이 경합하고 이를 통해 충성스런 공중들의 갈등과 경합, 그리고 반대여론의 자연스런 상호작용이 축소되거나 봉쇄되는 조건이 심화된다면 공중들의 인내력은 한계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신호를 한국사회에서 잘 확인할 수 있는 계기는 거의 팬덤을 형성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나는 꿈수다>를 둘러싼 대중들의 열광이다. '각하헌정방송'이라는 조소와 풍자의 뉘앙스를 애초에 노골화한 이 팟캐스트가 한국사회에서 강렬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방송과 인터넷에 대한 사실상의 여론통제와 언론자유의 제한에 상당부분 근거한다.

언론을 통한 여론형성 기능과 이를 통한 반대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축소된다는 것은 공중의 입장에서는 여론에 의해 대의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직업정치가들에 의해 대행될 수도 없는 공중의 군중으로의 격하라는, 사실상 제도적으로

강제된 정체성의 균열에 직면하게 만드는데, 이런 현실 속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힘입어 출현한 팟캐스트 방송은 다시금 공중으로의 정체성 구성을 가능케 하는 근거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조소와 풍자란 약자가 현실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강자의 권위와 영향력을 상상적으로 균열시키고 전도시키는 수사학적 무기일 수 있는데, 이는 오늘의 집권세력과 여당에 대해 강력한 반대당의 기능을 수행할 야당의 현실적인 무기력과 권력감시 기능을 사실상 회피하거나 거세당한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기성언론에 대한 공중의 불신임의 정도가 매우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는 꿈수다> 현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이 특이한 방송이 단순히 공중들을 상상적으로 결합시켜 여론을 형성하게 만드는 대의 기능에서 그치지 않고, 그들을 실제의 광장에서 결집시켜 정치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상상적 동일시와 연대감을 고양시키는 전략을 자주 보여주었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군중 또는 대중동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읽혀지는 것은 이 디지털 공중들의 정치과정에의 직접참여의 열망이 매우 강력한 결집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현실의 광장에서 폭발한 대중집회의 대개가 그렇듯, 현실적으로 이 직접행동에 참여하는 공중들의 정치적 참여는 정치적 대의제와 언론의 여론형성이라는 낡은 양식 속에 여전히 갇혀 있다.

III

세대론적 맥락에서 보자면, 오늘의 한국시민들은 기성세대에 속하는 근대적 시민과 새롭게 출현하면서 집단화되고 있는 탈근대적 시민으로 양분되어 있다. 대체로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를 존중하고 이 틀 안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와 민주주의를 사고하고 있는 인쇄출판문화의 공중들은 현재의 정치질서와 민주주의, 그리고 여론형성 경로가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대체할 새로운 정치와 소통양식에 대한 탐색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반면 문화적 차원에서는 진화하는 디지털 테크놀러지를 능숙하게 활용하고,

정체성의 차원에서는 민족이나 국가의 범주를 뛰어넘어 이미 세계화의 논리를 체화한 것과 동시에 이에 걸 맞는 각종의 역량(이른바 스펙)을 담지하고 있지만, 현실의 차원에서는 사회로의 연착륙이나 지위상승의 경로가 축소되거나 봉쇄되어 있는 젊은 세대입장에서는 탈근대적 시민성의을 지향하지만, 현실에서 그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전근대적 낡은 신분제의 이미지의 회귀로 느껴지는 불확실성이다. 이 불확실성은 자신이 담지한 역량에 비해 그것을 실현할 사회적 상승경로의 차단 또는 축소라는 괴리가 초래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괴리와 불확실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사유하다 보면, 문제는 결국 사회적이고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분노하고 있는 주체들에게는 어떤 공통성이 있다. 그들은 진정으로 현재의 기성세대나 사회시스템이 그들의 개인적·세대적·시민적 욕망을 대변하거나 대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생한 내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번지고 있는 청년들의 봉기와 조직화는 여론이나 정치세력의 간접적인 매개를 통해서 형성되는 공중의 정체성이 실효적으로 현실을 제어하고 변형하는 데 그닥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의 각성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른다.

물론 이런 청년들 역시 근대적 여론의 대의기능이나 정치적 대행기능을 일거에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오늘의 청년들은 근대적 공중에서 탈근대적 공중으로 이행하는 도정에 있는, 바꿔 말하면 낡아빠져 보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어깨를 하나의 악몽으로 짓누르고 있는 구세계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신세계의 희미한 전망 앞에서 전율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총선국면에서 발견했듯 정치세력들은 이들의 미래와 관련한 달콤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최선까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차악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것이 이들 청년들의 열망일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근대적 공중이 꿈꾸었던 민주주의의 대의적·우회적 경로 대신 이들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공중으로서의 자신의 능동적 참여를 가능케 할 민주주의와 사회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열망을 뿜어내고 있다. SNS로 연결된 이 탈근대적 공중들의

끝없는 스크린 터치는 새로운 정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형성의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